

# 건설



# 불황

국내의 경기 불황으로 강원도내 건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건설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7p 오른 89.9로 집계됐지만 3개월째 100선을 밑돌고 있다.

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

실경기 상

황이 나쁜

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웃돌면 그 반대

다.

문제는 연말까지는 물론 내년도

건설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

이다.

내달 발표될 11월 건설업 경기

실사지수는 10월보다 1~2p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

다. 특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건

설 수주 규모가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여 영세한 도내 건설 업

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구원이 내놓은 내년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영향 때문에 올해보다 10.6% 감소한 12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경기가 싸늘해지면서 해당 분야 이직율도 타 업종보다 높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건설업 이직률은 전 업종

중 16.1%

로 가장 높

다.

도내 건

설업 종사

자(일용직 제외)는 1만여 명이며

이중 매년 10%인 1000여명이 이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계의 이직률이 높은 것

은 건설이 수주 산업이라는 특수

성 때문이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 경

기가 좋을 경우 업체들은 기술직

종을 중심으로 인력확보에 나서다

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권고사직

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

해 이직률이 높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실사지수 3개월째 100 밑돌아

도내 종사자 연간 1000명 이직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의무직불제 시행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가 도입돼 체불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규 발주되는 공공 프로젝트에는 공공기관이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발주 공공기관이 입찰공고문에 의무직불원칙을 명기한 뒤 당사자 간 협약서를 받아 진행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6개 기관, 7개 프로젝트에 이미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가 시범 적용되고 있다. 도내에는 국도 65호선 삼척~동해구간 공사에 적용 중이다.

안은복